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3월 22일까지 김선두 초대 기획전 '색의 결, 획의 숨'을 펼친다. 남도의 자연을 담은 대작 '느린 풍경'.

‘색의 결, 획의 숨’ 전통 수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다

“제가 만난 고향은 천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향의 산과 바다의 색이 그렇게 아름답고 포근할 수가 없었죠. 누군가 제 그림에서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하던데, 아마도 남도의 자연이 제게 베푼 은전이 아닐까 싶네요.”

중앙대 명예교수인 한국화가 김선두(66). 그의 그림은 남도 그 자체다. 그러나 평범한 풍경은 아니다. 비범하면서도 깊이와 아우라가 느껴진다.

광양 도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김선두 초대 전-색의 결, 획의 숨' (3월 22일까지). 지난해 12월 23일 개막한 전시는 40여 년간 작가가 구축해 온 예술 세계가 녹아 있다.

28일 현장에서 만난 김 화가는 “이번 전시는 제가 이제껏 선보인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시”라며 “무엇보다 고향 남도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뽕모자를 눌러쓰고 전시장에 나타난 그는 얼핏 운동선수 느낌이 났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면 축구선수나 다른 구기 종목 선수라 해도 무방할 만큼 건강해 보였다. (실제로 그는 30년 넘게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질박해 보이는 인상 이면에 예술가로서의 섬세한 감성도 얼핏 배어 나왔다.

그는 “중학교 3학년까지 장흥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장흥에서 교사를 하시다 상경해 그림을 그리셨다”며 “어린 시절에는 조부 슬하에서 자랐기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전학을 간 이후 그림 그리시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기라성 같은 소설가를 배출한 문림 장흥이 고향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다. 더욱이 집안의 한학 가풍과 예술적 분위기는 그를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

한국화가 김선두 초대전

3월22일까지 광양 도립미술관
대작 '낮별' 등 60여 작품 전시

게 했다.

부친은 남종 문인화 거목으로 평가받는 소천(小泉) 김천두다. 김천두는 남농 허견과 월전 장우성에게 사사했다. 김천두는 아들 선두와 차남 김선일 그리고, 서울대 한국화과를 졸업한 손자 김중일로 이어지는 3대 화가의 맥을 형성했다.

가계에 흐르는 화맥은 고스란히 김선두에게도 전이됐다. 그만의 개성적이면서도 독보적인 화풍은 그러한 가계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

“남도 풍광을 그릴 때 가장 염두했던 것은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구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공간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버려진 땅이었죠. 하지만 애정이 깃든 눈으로 바라보자 그곳에서 생명력이 움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전시에서 김선두는 대작 위주의 작품 60여 점을 출품했다. 고향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투영된 ‘남도 시리즈’를 비롯해 ‘아름다운 시절’ 등 주요 작품,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화가로서의 그의 여정은 1980년 일광 이종상 화백에게 산수화의 장지 기법을 배우며 시작됐다. 1984년 제7회 중앙미술대전 대전을 수상하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술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한명을 꼽으라면 미백 이경준 소설가다. 동향인 이경



지난 28일 도립미술관에서 작품 설명을 하는 김선두 화가.

준 작가와 30여 년이 넘는 시간 예술적 교류를 이어왔던 것. 특히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는 오원 장승업의 그림 대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작품 특징에 대해 “전통 한지인 장지에 동양화 분채와 안료를 혼합한 색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며 “장지가 지닌 고유의 물성은 색을 스며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색은 축적돼 고유의 색깔을 발현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시 ‘색의 결, 획의 숨’은 김 작가 회화의 미학으로 수렴된다. “미술계에 입문할 당시에는 수묵화 운동을 전개하며 사실적으로 구현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전통 수묵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덧입혀 독자적인 회화를 선보이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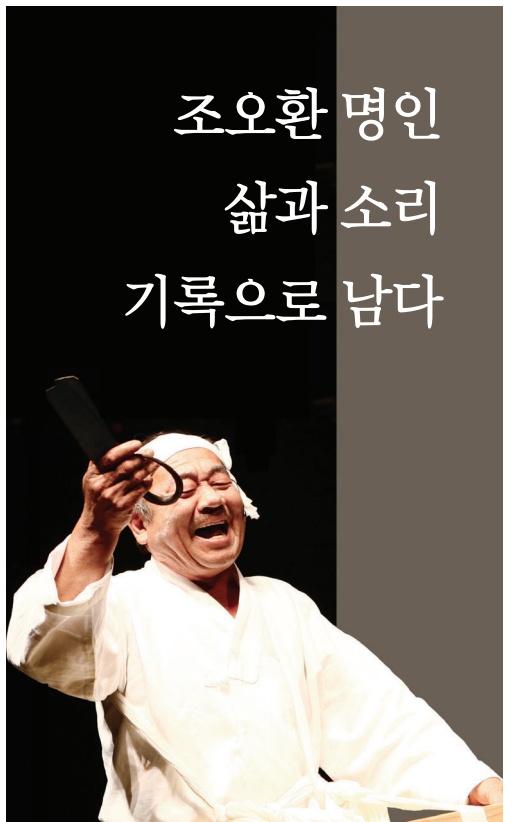
그림에서 발현되는 생동감과 온화한 시선은 삶

의 체험에서 길어올린 사유와 깨달음의 결과다. ‘느린 풍경’, ‘남도’, ‘장춘’, ‘별을 보여드립니다’, ‘낮별’ 등 고향의 대지와 삶의 속도를 사유한 연작 앞에 서면 오랫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낮별’ 연작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를 숙고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낮에도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를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별을 초점화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크고 작은 욕망, 욕심에 불려 별빛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은유한 그림이죠.”

김 작가에게 수묵은 전통 재료를 초월해 시간, 기억, 사유를 쌓아올리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단순한 듯 여운이 느껴지는 은은한 색감으로 구현된 화면은 오늘의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사유하게 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오환 명인 삶과 소리 기록으로 남다

국립남도국악원, 총서·음원 발간

남도의 소리를 한 사람의 삶으로 엮어낸 책과 음원이 세상에 나왔다. 진도 바다와 섬, 민초들의 일상을 노래해온 명인의 시간이 기록으로 남았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은 지난 28일 국악원 세미나실에서 조오환 명인의 삶과 예술을 담은 연구총서와 음원 발간을 기념하는 헌정식을 열었다. 남도 지역 무형유산 예술인의 삶을 기록하고 전승하기 위한 구술채록 사업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조오환 명인은 전남도 무형유산 ‘조도땃배노래’ 예능보유자로, 진도 민요 ‘옛타령’과 ‘장타령’ 등으로 잘 알려진 소리꾼이다. 조부 조해정, 모친 박색구, 딸 조유아까지 4대에 걸쳐 소리를 이어온 집안으로 현재는 진도옛타령보존회를 중심으로 공연과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립남도국악원 총서 27: 조오환의 삶과 예술’은 명인의 어린 시절과 진도의 옛 풍경, 섬 사람들의 삶과 의례, 땃배노래와 민요가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과정을 그의 목소리로 풀어낸 기록이다. 한 개인의 생애를 따라가며 지역 민속예술의 형성과 전승의 흐름을 함께 보여준다.

함께 공개된 디지털 음원 ‘남도무형문화예술 시리즈 15: 진도 토속 민요와 소리’에는 ‘흥타령’, ‘옛타령’, ‘상여소리’ 등 진도 민요 20곡이 담겼다. 조오환 명인과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이 참여해 현장에서 이어져 온 소리의 결을 충실히 담아냈다. 음원은 총서에 수록된 QR코드와 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이번 발간은 한 명인의 삶을 통해 남도 민속예술의 가치를 기록으로 남긴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지역 무형유산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록과 전승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구 ‘어린이 시인학교’

30일까지 시인 문병란의 집

‘모든 사람은 시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시작 감수성이 내재돼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함과 감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기 일쑤다.

어린이 시인학교가 열려 눈길을 끈다. 30일까지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펼쳐지는 ‘제5회 광주 어린이 시인학교’가 그것. 강사로 문부 시인과 진현정 시인이 나서 프로그램을 이끈다.

올해로 5화재를 맞은 ‘어린이 시인학교’는 광주 동구가 마련했으며 어린이들이 시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동시를 쓰는 창작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문병란 시인의 삶과 시에 담긴 정신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된다.

박영신 팀장은 “문병란 시인의 집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시인학교는 장소성을 내제한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특징 외에도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시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데 특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시가 놀이가 되는 시간…ACC ‘판타지 인벤토리’ 연계 워크숍

31일·2월 5일 어린이문화원

아이들에게 전시는 하나의 놀이가 되고, 놀이는 곧 기억이 된다. 어린이들이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마주하며 상상력을 키우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은 게임형 어린이 전시 ‘판타지 인벤토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와 워크숍을 오는 31일과 2월 5일, 각각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 운영한다. 장소는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이다.

‘판타지 인벤토리’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어린이 특별전으로 지난 10년의 기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하는 기획이다. 게임 용어인 ‘인벤토리’를 차용해 관람객이 전시 공간을 탐험하며 기억의 조각을 모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철아, 천영록, 소보람, 장전프로젝트 등 8팀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 개막 이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계 프로그램은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직접 어린이들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의 주요 공간인 ‘기억의 전당’과 ‘인공지능 루니’를 중심으로 기억과 상상, 기술과 예술을 잇는 체험



소보람 작 '나의 기억극장'.

〈ACC재단 제공〉

이 진행된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16명이며 모든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31일에는 소보람 작가가 작품 ‘나의 기억극장’을 바탕으로 ‘기억이 움직이는 극장’ 워크숍을 연다. 어린이들은 미생물과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이야기를 듣고, 별과 태양, 달을 주제로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한다. 기억과 상상력을 엮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특징이다.

2월 5일에는 장전프로젝트의 장준영·전지운 작

가가 참여하는 ‘내 친구, 인공지능 루니’ 워크숍이 열린다. 어린이들은 인공지능을 기계가 아닌 교감하는 존재로 상상하며, 얼굴 없는 인공지능 친구를 직접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기술과 감성의 관계를 풀어낸다.

한편 ‘판타지 인벤토리’ 전시는 오는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아티스트 토크와 워크숍 참여 신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